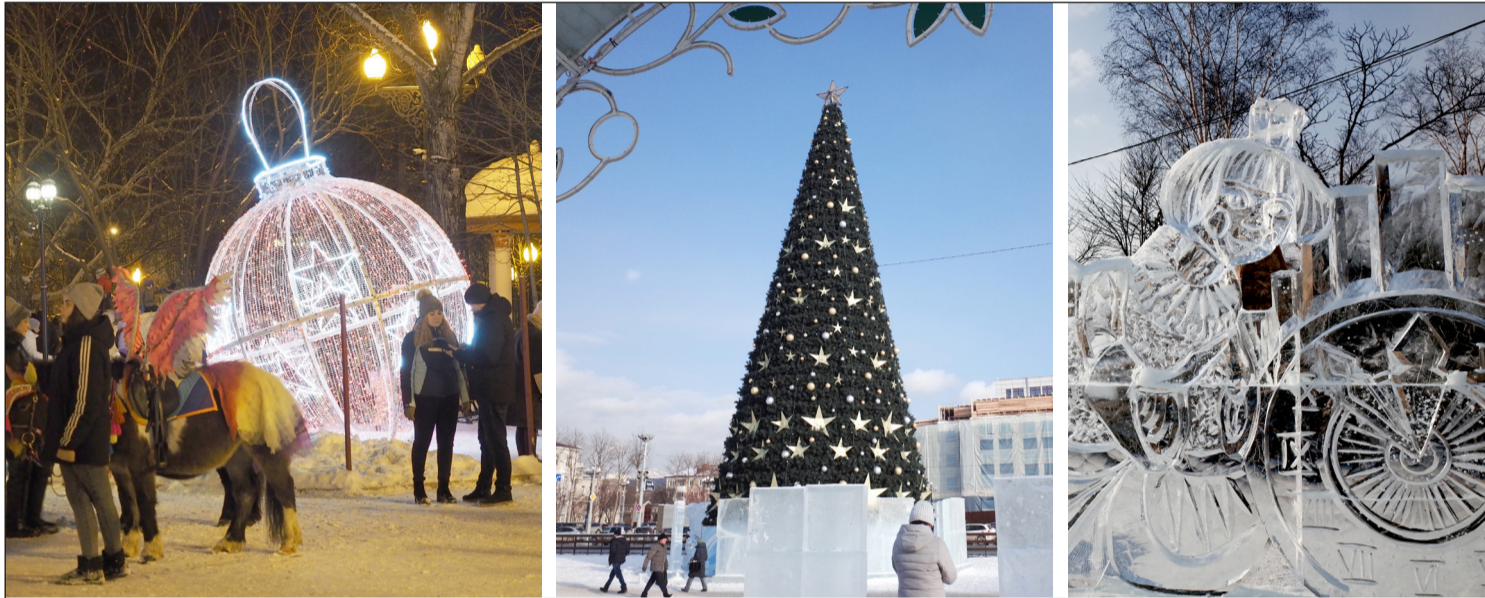


|                                                                                  |                                                                                                                            |                                                                                                                                 |
|----------------------------------------------------------------------------------|----------------------------------------------------------------------------------------------------------------------------|---------------------------------------------------------------------------------------------------------------------------------|
| 사할린주<br>사회정치신문<br><br>Общественно-<br>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br>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 2020년 12월 25일 (금)<br>(윤력 11월 11일)<br>Пятница<br>25 декабря 2020г.<br>№ 50 (116917)<br>1949년 6월 1일 창간<br>-----<br>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새해를 기다리며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여러 곳의 명절 분위기.

(이예식 기자 촬영)

## 단신

### 사할린 주지사, 국가 평의회 새 위원으로

12월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평의회 구성원 승인에 대한 법령에 서명했다. 국가 수장은 평의회 위원장이며 위원들은 러시아 연방 정부의 총리, 연방 회의 의장, 국가두마 의장과 정당 대표, 대통령 행정실장, 연방 자치관구와 주요 지방의 대통령 전권대표이다.

새로운 국가평의회에는 러시아 연방 행정주체들의 지도자 27명이 포함되었다. 이 중 평의회 투자위원회를 지휘하게 된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지사다.

평의회 기관 활동에 참여로 사할린 주지사는 연방 차원에서 사할린 지역의 이익에 대한 주장과 보호를 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얻게 된다. 2020년 1월에도 사할린 주지사는 러시아 연방 국가평의회 상임간부회에 선정된 바 있다.

### '고르니 워즈두흐', 12월27일부터 스키 시즌 시작

'고르니 워즈두흐' 60주년 스키시즌 개막이 12월 27일에 진행된다. 이날 열기를 돋울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린다.

전통적으로 가장 불 만한 겨울철 주요 행사의 하나로 대규모 스키어들이 손전등을 들고 슬로프 하강과 정설기 쇼가 진행된다(오후 7시 시작).

스포츠관광단지 중간 역에서 11시에 개막 축가가 시작되는데 10시-11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 스키 광장까지의 케이블카 이용은 무료다.

행사 개막식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개막식 이후에는 어린이들의 스키 하강이 진행되는데 스키장을 찾는 모든 어린이들은 동반자와 함께 11시에 행사에 와서 스키 하강에 참여할 수 있다.

### 새해 연휴, 안전문제 심의

지난 21일(월) 사할린주 정부에서 새해연휴 기간 안전 조치 문제로 반테러위원회와 작전본부의 합동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새해 연휴 동안 사할린 주민들이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대중 행사들이 취소되었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새해 연휴 동안 경찰, 국가 경비원과 개인 경비 회사, 민간 안전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체 지도자들도 지방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화재 방지에 따른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 사할린 지역, 코로나19 대량 백신 접종

사할린주에서 코로나19 대량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12월 23일 백신 '스푸트니크 V' 1000회분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보급되었다. 이는 사할린에 보급된 가장 대규모의 백신으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면역을 시작되었다. 이 정도의 분량이면 접종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운데 위험군에 속한 교육자, 의료진, 사회복지 종사자들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도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다. 12월 23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24일부터는 인근 지역 - 아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시네고르스크 등지 - 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사할린 북부와 쿠릴 지역에도 백신이 공급된다.

백신이 사할린에 처음 보급되었을 때 약 600명이 접종을 받았으며 각 지방에는 백신 접종센터가 개설되었다. 18세부터 60세까지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 모두 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과 노년층에게는 임상 실험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 국가서비스 포털사이트의 '진료 예약' 항목에서 대기표를 받을 수 있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접종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접종 전 내과 진료를 반드시 받고 혹시 모를 부작용과 관련해 상담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약품 보존을 위한 특별한 온도 조건을 요하므로 독감 백신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은 의료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지역 보건부의 치료과 과장 밀라 텐(정)이 밝혔다. 순차적으로 사할린의 백신 공급은 다음 주에 1500회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월 말까지 사할린주에는 총 3만3천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전망이다.

사할린주는 국내에서, 극동지역들 중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 된 곳이다.

###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사할린 도착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2021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이 일전에 사할린을 도착했다고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전했다. KIN(지구총동포연대)은 2013년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을 매년 모금 운동을 통해 제작한다. 음력 달력의 필요를 느끼는 사할린 동포들은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 명절·국경일을 표기하는 이 달력을 좋아한다. 모국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달력에 여러 번 한국의 풍경 사진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성인 사진작가의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진들이 실렸다.

킨의 최상구 사무국장은 "벽걸이 달력 1천25부, 탁상용 2천부 총 3천부를 제작했습니다. 변함없이 사업지원을 해주는 재외동포재단과 NH농협생명뿐만 아니라 (주)한국 서부발전에서도 소중한 나눔을 해주셔서 평소보다 많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할린으로 1천2백43개(벽걸이 1천15개, 탁상용 2백28개)를 해상운송으로 발송했고,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배포하였습니다. 안산 고향마을, 인천의 남동 사할린센터, 김포 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직접 찾아뵙고 전달했고, 그 외 지역은 12월 3일 택배 발송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 보어도 이야기도 오래 나누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새해를 기원합니다"라고 하였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은 «벽걸이 달력 중 100개는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로 이미 발송했고 사할린 지방에는 1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 한인협회 측에서 직접 지방을 방문하여 마스크와 함께 달력을 나눌 계획»이라고 하였다.

### 8세미만 어린이들에게 5,000루블리 지급

2020년 12월 17일 대통령령 797호에 따라 러시아 연방 시민권자로서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며 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또는 보호자나 후견인, 양자를 둔 가정에 있을 경우 아동 1인당 일시 지원금으로 5천 루블리가 지급된다.

새로운 지원금은 2020년12월17일 기준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된다. 지급 신청서는 2021년 4월1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사할린주에서는 4만6천 명의 아동이 일시금을 받게 된다. 7세 이하 아동당 5천 루블리 지급액으로 총 2억3천2백만 루블리 이상이 배당된다. 올해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나, 보호자나 후견인의 경우 일시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새로운 지급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지급 신청서는 2020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나 1년간 연금재단이 제공하는 각 아동수당을 부모가 지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출을 요한다.

|              |                                                                                                                                                                                                                                                    |  |
|--------------|----------------------------------------------------------------------------------------------------------------------------------------------------------------------------------------------------------------------------------------------------|--|
| <b>새고려신문</b> | <h2 style="margin: 0;">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h2> <p style="font-size: 0.8em;">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br/>1개월 구독료는 <b>91루블리 85코페이카</b>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p> |  |
| (본사 편집부)     |                                                                                                                                                                                                                                                    |  |

대한민국 정세균 총리, 10개국의 재외동포 11명과 화상간담회 주재

정 총리 "코로나 장기화, 생계 어려운 재외동포 중점 지원"

대한민국 정세균 총리 주재 10개국 재외동포 11명과 화상간담회에 대한 한국 '서울=뉴스' 언론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생계가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돕기 위해 취약 동포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미·중·일·러·호주·이집트 등 10개국에 거주하는 11명의 재외동포와 화상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외동포는 △우즈베키스탄 아리랑요양원장 △이집트 한인회장 △호주 시드니한인회장 △아랍에미리트(UAE) 건설현장 근로자 △사할린 한인협회장 △이민자 출신 미국 시의원 당선인 △재일동포 3세 인권단체 대표 △입양인 출신 스웨덴 국회의원 △베트남 청년 창업가 △조선족 출신 기업인 △중국 상해 한국국제학교 교사 등 11명이다.

간담회는 지난 7월24일 대통령 주재 재외동포 화상간담회에 이어, 겨울철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포사회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올해 초 한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고국에 성금과 방역물품을 지원한 재외동포 사회에 감사를 표했다.

또 "11월 미국 선거에서 역대 최다 당선인을 배출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우리 동포사회가 저력을 보여줬고, 경제·사회·문화 등 폭넓고 활발한 활동

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며 "재외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180개국 750만 재외동포 개인의 성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생계가 어려운 재외동포들을 돕기 위해 취약동포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영사조력법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안전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온라인 영사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할린 동포법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가슴 아픈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가칭) 건립, 모국과의 교류 협력 사업 확대와 차세대 동포의 성장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코로나 대응 관련 유럽 등 현지 당국과의 방역 경험 공유 △차세대 동포들의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 한인의 숙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발표 내용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사할린 한인협회장 박순옥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바쁘신데도 해외 동포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포 현황 및 코로나 상황)

사할린의 총인구는 약 49만 명이고, 그중 약 5%인 2만 6천 명이 우리 한인 동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영주귀국 및 체류 중인 사할린 동포는 약 5천 명입니다.

사할린의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1만 4천여 명이며, 하루 약 1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공식 사망자는 15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재외동포재단 덕분에 동포들에게 마스크 등을 지원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의 사항)

총리님께 사할린 동포들의 숙원사항 2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과 그 자녀 1인(배우자 포함)'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이미 영주귀국한 동포 중 생존자 2,700명의 자녀와, 사할린에 남은 1세 동포 530여 명과 그들의 자녀 뿐입니다.

강제징용자의 대부분은 한·러 수교 이전에 사망했으므로 현재 생존자와 그 자녀들만이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에 동포들은 이 법을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대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국적 회복입니다.

사할린 거주 동포들은 오랫동안 무국적으로 살다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 국적을 받았습니. 많은 동포들이 러시아에 생계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한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 2가지의 건의사항이 실현되도록 총리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미식 축제에서 총 100kg의 만두 시식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5번째 미식 축제가 열렸다. 식품 박람회와 일환으로 12월 19일 축제는 '돔 토르고블리(백화점)' 옆 광장에서 펼쳐졌다.

축제 방문객들은 다양한 고물로 채워진 뜨거운 만두 100kg을 맛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었다.

2020년 만두 축제의 일환으로 10개의 일반 식품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만두와 그 친구들'이란 미식 마라톤이 열렸다. 한 달간 이 업체들은 350루블리라는 가격으로 축제 음식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만두 마라톤이 진행되는 동안 주 중심의 식객들은 1000개의 요리를 맛보았는데 그중 고자, 쿤둠, 와레니키, 라비올리, 만티 등이 있다. 축제 음식 판매량이 가장 많은 업체는 '호카이도' 회초밥 식당이다.

이외에도 한 달간 축제의 일환으로 주민들 사이에 반응을 설문조사해 사할린의 만두 생산 업체들 중 가장 맛있는 만두를 선정했다. 선정에 도심의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나안(가나안)회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가장 적극적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육류 분쇄기 조립대회(최고 기록은 32초), '가장 행복한 만두'경연, 만두 빨리 먹기대회에도 참가했다. 올해 만두 빨리 먹기 대회의 우승자는 청년 자원봉사자 아르쎬 코주브가 만두 30개를 1분 57초 만에 먹어 부상으로 만두 30kg을 받았다.

축제의 어린 참가자들에게는 색깔 만두세트를 선물했다고 시청 홍보부가 전했다.

100 kgпельменей съели н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 фестивал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пельменей в пятый раз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аздник в рамках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ярмарки 19 декабря развернулся на площадке около Дома торговли.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горячие пельмени с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начинками (более 100 кг), но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личных конкурсах.

В 2020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ельменей состоялся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0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они предлагали своим посетителям фестивальные блюда по фиксиро-

ванной цене — 350 рублей. За время марафона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тведали порядка 1000 блюд, среди которых гедза, кундюмы, вареники, ravioli, манты и пр. Лидером среди продаж фестивальных блюд стал суши-бар "Хоккайдо".

Кроме того,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водился интерактивный опрос среди населения,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были выбраны самые вкусные пельмен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Участие в голосовании приняли 5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беду,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держала компания "Ханаан".

Самые актив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ах на сборку механической мясорубки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 32 секунды), "Счастливые пельмени" и скоростное поедание пельменей. Быстрее всех с последним заданием в этом году справился молодой волонтер Артем Козуб, съев 30 пельменей за 1 минуту 57 секунд. В подарок он получил 3 кг пельменей.

Юные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в подарок получили наборы цветных пельмен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올림픽 곰 미니 전시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이 올림픽 곰을 기념하는 미니 전시회에 사할린의 주민과 방문객을 초대했다. 전시회는 12월 19일 올림픽 곰의 탄생일에 맞추어 열렸다.

전시회에는 소비에트 스포츠의 유명 마스코트와 함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상징인 북극곰이 전시된다. 1977년에 소비에트 스포츠의 상징은 1980년 제22회 하계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로 확정되어 곰 마스코트는 우스기와 우표, 우편 봉투와 엽서, 배지와 기념품, 출판물 등에 등장했다. 올림픽 곰 모양은 지금까지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

전시회 전시품 대부분은 나탈리아 키류히나 사할린 곰 박물관 설립자가 20년간 수집한 것으로 2020년 이고리 코프첼로브가 기증했다.

사할린주 스포츠 업적 대중화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스포츠 박물관 설립이 결정된 가운데 스포츠 주제에 걸맞는 전시품 수집 장소는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이라고 박물관 측이 밝혔다.

미니-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олимпийскому мишке, откры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мини-выставку, посвященную олимпийскому мишке,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глашает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на приурочена к его дню рождения — 19 декабря.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 вместе с известным советским спортив-

ным талисманом и белый медведь, который стал символом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2014 года.

В 1977 году совет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символ был утверждён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ого талисмана XXII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1980 года. Изображение медведя появлялось на вымпелах и плакатах, почтовых марках, конвертах и открытках, значках и сувенирах, страницах печатных изданий. Образ олимпийского мишки до сих пор узнаваем и любим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о всём мире.

Большая часть экспонатов на выставке собрана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 лет основателем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медведя Натальей Кирюхиной, получены в дар от Игоря Коптелова в 2020 году.

В рамках популяризации спортивных достижен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музея спор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сто сбора предмет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спортивной тематике, —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ообщает музей.

사할린의 연금 수급자, 50만 루블리 사기당해

홉스크의 한 연금수급자가 50만 루블리를 사기꾼들에게 넘겨주었다.

이 여성은 '은행 보안 서비스' 사기꾼들의 잘 알려진 수법에 걸려 당하고 말았다.

내무부 사할린관리국에 따르면 12월7일 76세의 지역 주민이 도움을 청하러 법무 관계자를 찾았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사람이 다양한 전화번호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보안서비스 수석 감독관이라 사칭한 남성은 피해 여성의 은행계좌가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고는 남성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쇼핑센터에서 통신사 관리자의 도움으로 지시한 계좌로 입금시켰다. 이후 여성은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닫고는 경찰서를 찾았다.

같은 날 45세의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 그녀의 계좌에서 3만1000루블리가 빠져나갔다고 신고했다. 이 여성은 인터넷으로 꽃 판매에 대한 광고를 올렸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해 그녀에게 7천 루블리를 송금했다며 휴대전화 앱에 돈이 송금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에게는 이 앱이 없어 남편에게 구매자와 얘기하도록 부탁하자 남편은 전화 통화로 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후 그의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이러한 사건들 모두 범죄 사건으로 제소됐다.

(8면에 계속)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72호, 2020. 12. 22., 제정]

외교부(재외동포과), 02-2100-7575  
외교부(아태1과), 02-2100-8015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 외교부장관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관련 연구·학술활동의 지원 사업
2. 사할린동포의 역사 및 문화의 보존 사업
3. 사할린동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할린동포를 위한 추모사업
5. 그 밖에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제3조(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①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의 접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업무

부 칙 (대통령령 제31272호, 2020. 12. 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0년을 배웅하고 2021년을 마중하며 (극복, 도전, 희망으로)

### 샤스키나 올라(45세), 교수:

일본에서는 매년 올해의 단어가 선택됩니다. 저에게 올해의 단어는 의심 할 여지없이 '디지털'이었습니다. 올해 디지털 학습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많은 발견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단어가 주제가 될지? 저에게는 아무래도 '자유'입니다. 의사 소통의 자유, 이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 등,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 나린스카야 안나(18세), 대학생:

2020 년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훌륭했고 통합 주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 월에 러시아어 국가 시험 시험 때 제가(당시 학교 졸업반) 작문을 썼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내일부터 방학'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학이 끝난 후 2주 만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고 다음엔 집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나중에 졸업생들이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격리 이후에 누군가와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자가 격리하는 동안에는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올해는 주요 사건이 많았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새해에는 스트레스를 덜 받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정을 원하고 감정적 격변이 적으면 합니다. 2021년에는 즐거운 서프라이즈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웅희 (28세), 통역사 (대구):

올해는 작년과 달리 무기력한 1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증의 여파는 무시 못할 일이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사람들과의 모임을 자제해야 했기때문에 친구들과의 만남이 많이 적어졌습니다.우선은 코로나가 종식 되길 바라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동영상 제작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교육 등 온라인에서 가능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 박 나탈리아 (46세), 가정주부 (부산):

저에게 지나가는 해는 흥미롭고 바람직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창작을 통한 자기 표현과 의식 그리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데 유익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 한 드미트리 (25세), 개인기업인 (서울):

올해는 "재택 근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웠고 저는 이것을 전에 겪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을 감독하고, 작업을 구성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배워야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멈추지 않고 이 기간 동안 큰 도약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놀라워 합니다. 2021년에는 사무실에 돌아가 근무하는 것이 소

원입니다. 화상통화를 통해서 아닌 동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습니다. 라이브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없었던 휴가도 가고 싶어요.

### 코발 발레리아(33세), 사진작가와 음악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콘서트 및 저의 음악그룹의 연습도 없이 1 년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부모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새해에는 친척들을 더 자주 만나고, 생명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자주 방문하고 싶습니다.

### 사빈스카야 엘리자베타(15세), 학교 학생 (마그니토고르스크):

올해는 저에게 좋은 해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하였고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와 지인을 찾았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제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집에 앉아 있는 것을 편안하게 느꼈고, 격리는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한 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새해에는 제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하고 싶습니다. 계획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앞으로 국가 능시험에 잘 응시하는 것입니다.

### 인 올라(37세), 가정주부:

올해는 제 셋째(아들)가 태어난 해입니다. 하나뿐인 딸은 유치원에 처음 갔고 만이는 16세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지만 남편도 배려해주시고 큰 아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 정말 힘이 납니다. 많은 친척들도 응원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년에 모두가 건강하고 행운이 각 가정에 깃들었으면 합니다.

### 남경주 (22세), 유학생 (한국):

올해는 저에게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게 된 해였습니다. 온라인 수업, 자가격리, 코로나 검사 등 처음 겪어보는 것들을 해보았고 재미있었습니다. 다만 수업을 모두 들을 수가 없어서 수업 진도를 모두 따라가지 못했지만,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배려로 현재까지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올해는 여러모로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잇고 살았던 편안함, 안정감 및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일상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가 생활하였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마스크 쓰기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킵시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박 다리야 적었음)

##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서서히 분명히

흔할 때는 귀한 줄 모른다. 무한리필이라고 여겼던 것들일수록 바닥이 보이면 사무치게 후회를 한다. 시간, 건강, 사람, 돈, 모두 있을 때 관리해야 하는데 그 목록에 살펴서 하나를 더한다면 머리카락이 있다.



손오공도 아니면서 어릴 적부터 심심하면 머리카락을 뽑았다. 머리카락 싸움을 하면 늘 이기는 게 재미있어서 온 반 아이들을 다 상대하곤 했다. 굵고 검고 엄청나게 술이 많은 머리는 특히 여름에 힘들었다. 한 번은 친구네 이발관으로 이발을 하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내 머리를 깎다가 옆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버럭 화를 냈다.

"여보! 아침에 가위 갈아달라고 했어? 안 했어?"

"갈았어!"

"간 가위가 이렇게 안 들어? 왜 거짓말 해?"

싸우고 싶었는데 내 머리카락이 발미를 만들어 준 것 같아 이발이 끝나자마자 머리로 감지 않고 빠져나왔다.

잡초같이 자라는 머리가 귀찮아 잔디처럼 짧게 자르며 평생을 살려 했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었다. 십여 년 쯤 전에 큰 수술을 받았더니 체질이 바뀌면서 머리카락이 먼저 변했다. 부드러워지나 싶더니 곱슬곱슬해지다가 쑥쑥 빠지는 것이다. 흰머리가 등장한 것도 그 무렵이다. 하나를 뽑으면 둘이 났는데 무심코 보이는 대로 뽑다가 지금은 그마저 아낀다. 흰 머리라고 무한정 생기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아서다.

이십대에 대머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짐작하겠다.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할 아픔이다. 한겨울에도 머리칼을 날리며 오토바이를 타던 시절, 졸음을 쫓기 위해 머리카락을 뽑던 시절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반백의 장인어른에게 염색을 하시면 어떨까요? 권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백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알겠다. 정수리가 허전하고 이마가 시원한 지금이라도 머리카락에 공을 들이면 어떨까 싶어서 탈모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진다.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삶의 영수증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최대한 느끼게, 되도록 눈에 띄지 않게 그 변화를 맞고 싶다. 은발처럼 멋진 장인어른 옆에 아직 새파란 대머리 사위가 서는 불효는 저지르고 싶지 않으니까.

광주에서 김남중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овожая уходящий, встречая новый

**Ольга Шашкин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ахГУ**

В Японии каждый год выбирают «слово года». Для меня словом года, несомненно, было «цифра»(цифровой). Я себя в этом году нашла в цифровом обучении и общении. Было множество разных открытий и трудностей, но мы вынуждены с этим мириться. Слов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Для меня это «свобода». Свобода общения, свобода передвижения, свобода выбора, хочется быть не зависимым от внешн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Анна Нарынская, студентка**

2020 был очень сложным для меня. Сначала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ничего не предвещало беды. Первые два месяца были замечательные, я готовилась к Едино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Экзамену. В марте на пробном экзамене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я писала сочинение, к нам зашла преподавательница и сказала, что с завтрашнего дня у нас каникулы. В школу мы вернулись, но только на две недели. Однако это было бесполезно. В школу ходили только выпускники, мы были рады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ле карантина поговорить хоть с кем-то вживую. Зато я начала увлекаться фильмами и наконец-то закончила картину.

В этом году я приобрела нечто важное, поступила в университет и встретила новых друзей. В новом году я желаю получать меньше стресса, этот год был тяжелым. Хочется стабильности, меньше эмоциональных потрясений. Надеюсь, что 2021 год будет полон приятных сюрпризов.

**Наталья Пак, домохозяйка (г. Пусан)**

Для меня уходящий год был интересным и плодотворным. Это время было полезным для познания себя, осознания и самовыражения через творчество.

Надеюсь на снижение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связанных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 2021 году.

**Дмитрий Хан,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г. Сеул)**

В этом году я узнал, что такое «дистанционная работа». Это было очень непросто, раньше я с таким не сталкивался.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ков,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работу, следить за расписанием. Все это пришлось научиться делать. Технологии не стоят на месте, за этот период произошёл огромный скачок вперёд. Это ли не удивительно? В 2021 году хочу вернуться в офис и видеть своих коллег каждый день лично, а не на экране телефона. Ничто не может заменить живое общение. А ещё хочется поехать в отпуск, которого в этом году не было.

**Валерия Коваль, фотограф и музыкант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Я творческий человек и прожить год без репетиций, концертов и своей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Однако я научилась искать позитив во всем, превращать недостатки в достоинства. Мы должны ценить то, что у нас есть. В особенности наших детей и родителей, они у нас одни.

В новом году я бы хотела почаще видеть сво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чаще навещать их без опасений за их жизнь и здоровье.

**Савинская Елизавета, ученица средней школы (г. Магнитогорск)**

Этот год был для меня хорошим. Я открыла в себе много новых сторон, нашла новых друзей и знакомых онлайн. Было время понять, чего я хочу от жизни.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комфортно, сидя дома, карантин мне даже пошёл на пользу. Каждый день я занималась тем, на что раньше не хватало времени. В новом году я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с тем, что я хочу от жизни, кем я хочу стать. В планах активно учиться и хорошо сдать ЕГЭ, конечно же.

**Дарья Пак**

## Юрий Трутнев провёл встречу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осланник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прос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бсуждались на встреч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с У Юн Гыном, специальным посланником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крепление все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Мы стремимся в полной мере реализовать существующий потенциа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вызванные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мы стремим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нтакты по ли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 наших стран», – отмет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Вице-премьер поблагодарил корейскую сторону за внимание к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с Росси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о направл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лан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для передачи личного послания лидера Южной Кореи в адрес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а также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практ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шение о направлении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было приня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говоренностью, достигнутой в октябре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Юрия Трутнева с вице-премьером – министром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он Нам Ги.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был определен бывши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 Юн Гын.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назначил меня его спецпосланником, чтобы российским партнерам передать его твердое намерение к динамичному развитию тесного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в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то же время, направив меня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намерен вновь отметить значимость юбилейной даты –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Я уверен, что партнерство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будет упорно развиваться на основе дружеских и доверит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глав двух стран», – сообщил У Юн Гын.

Как напомн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к 30-лет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риурочено проведение масштабного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озданные в двух странах Оргкомитеты подготовили содерж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мероприятий Года,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под лозунгом «Дружить. Доверять. Действовать». Хотя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мног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шлось отложить, некоторы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В частности,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шли бизнес-диалог «Россия-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альнейшие шаги для успешного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30 лет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контактов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езультаты и картина будущего».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м центр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провела IV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день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и прошла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ённая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екоторые проекты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в 2021 году.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родлении Года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 сентябре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двух стран.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мнению Юрия Трутне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стается важным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оритетно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рост темпов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октябр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опредседа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было подписано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о Плана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Девяти мостов» (версия 2.0). Как замет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оронами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ы составы профильных рабочих групп, курирующих выполн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и проект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данным План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нвестора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ализуется 10 проектов на общую сумму 81 млн долл. США.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проектов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проект компании «Эл-Эйч Корпорейшн»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Данный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выполнения Плана реализации концепции «Девяти мостов» (версия 2.0). Россий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ами проведе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детальному изучению возможных вариантов размещения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существлён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площадок, в том числ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тоим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Стороны пришли к единому мнению о структур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и до конца недели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Эл-Эйч Корпорейшн».

По словам У Юн Гына,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участии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развитию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в частности, в проекте по созданию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Юрий Трутнев отметил готов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рассмотреть предложения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и оказать им содействие в проведении переговоров с росси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Рассматривалось совмест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едоколов по перевозке СПГ. В российской Арктике реализуются круп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 участием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из Китая, Японии и Франци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частвует в данных проектах как подрядчик. По словам У Юн Гына,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верфи «Дэу» построены и уже эксплуатируются 15 судов-газовозов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контракты ещё на 6 газовозов для проекта «Арктик СПГ 2» подписаны в этом месяце. Дальнейше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газовозов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а российской верфи «Звезда»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партнером –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Самсунг». «Все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благодаря высокой оценке корей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 пояснил спецпосланник.

Продолжаются переговоры по проекту Соглашения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услугами и инвестициях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бе страны прида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заключению этого соглашения, которое должно послужить усил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ооперации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продолжался даже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Уверен, что работа наших команд приведет к достижению качественных и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 подытожил Юрий Трутнев.

(Источник: сайт министерства РФ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 В КНДР усиливается борьба с курением

Рестораны, автобусные остановки, гостиницы, магазины, общественные бани, кинотеатры, библиотеки,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площади и друг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мес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объявлены зонами, свободными от курения во исполнение принятого в ноябре закона о борьбе с курение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К зонам, где курение запрещено, отнесены также центры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ские сады, школы,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и места, подверженные пожарам и взрывам, такие как леса и газовые станции. Закон о борьбе с курением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всех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нём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ужесточение контроля над курением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для защиты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людей». Будет ли закон применяться к лидер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у, неизвестно, поскольку на многих фотографиях, публикуемых СМИ, он изображён курящи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урения. В 2014 году курили 43,9% населения.

**KBS World**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усти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осква рассмотрит возможность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Р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21 года

Москва серьёзно рассмотрит возможность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Р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7 декабря журналистам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У Юн Гын. Бывший посол РК в России и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находился в Москве с визитом, который был приурочен к 30-лет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помощник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Юрием Ушаковым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ередал письм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на им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котором содержится приглашение посетить Сеул. Визит, который планировался на этот год, был отложен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 Пхеньян перестроит туркомплекс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по-своему»

Председатель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НДР Ким Док Хун посетил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траны и призвал создать там современ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перестроив его «по-своему». Как сообщило в воскресень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н призвал построи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в котором «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очетаются в хорошей гармонии с природным ландшафтом гор Кымгансан». Ким Док Хун обсудил также «техн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культур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людей в генеральном плане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рограмма посещения гор Кымгансан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туристами была запущена в 1998 году. В 2008 году она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олдат застрелил южнокорейскую туристку. В сентябре 2018 года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договорились возобновить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однако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лидер КНДР приказал снести все «неприятные на вид» объекты, построен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Он заявил, что Пхеньян более не намерен полагаться на Сеул в развитии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создадут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в России

18 дека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 также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дписали с Корейской земельной и жилищной корпорацией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целя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Корейски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Он размести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деждинска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Владивосто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осмотрели территорию минувшим летом и выбрали участок площадью 50 гектаров н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лощадке «Западная»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около 1.100 гектаров.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оры получат в новом парке статус резидентов.

##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запрещ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пяти человек

В период с 23 декабря по 3 январ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запрещ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пяти человек,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где они проводятся –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или на улиц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иняли 21 декабря власти городов Сеула и Инчхона, а такж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ограничительная мера принята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ростом числа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конце год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увелич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и поездок, ч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дальнейшему росту числа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Новый запрет по своей строгости выходит за рамки не только действующего уровня 2,5, но и самого жёсткого, третьего уровня. В рамках уровня 2,5 запрещ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50 человек, а в рамках третьего – более 10 человек.

## РК знакомит мир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нарядом Ханбок

Управление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К и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запустили с 18 декабря проект Korea in Fashion. Его цель состоит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в мире контентов, связанных с культурой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нарядов Ханбок и королевских дворцов. Речь идёт о видео- и фотоматериалах, в которых отражён новый взгляд на красоту Ханбок на фоне благородного дворцового убранства. В качестве фэшн-директора в проект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именитая дизайнер Ким Ён Чжин, отвечавшая за костюмы при создании известных сериалов и фильмов. Авторы выразили свой концепт в осовремененном образе принцесс Пок Он и Ток Он, дочерей 23-го короля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С материалами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канале проекта на видеохостинге YouTube (www.youtube.com/문화유산 방문캠페인). Кроме того, они будут активно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через соцсети и другие СМИ. (RKI)

##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ись реформы полиции, разведки и прокуратуры

Во вторник 15 декабр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вступлении в силу "трех законов о реформировании след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Согласно этим законам, в Корею сильно изменятся полномоч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службы (НРС), полиции, прокуратуры, а также будет создана новая следственная структура, которая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Если говорить совсем точно, то речь идет о вступлении в силу одного нового закона – Закона о Комитете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 и поправкам к двум уже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ам – Закону о НРС и Закону о полиции. Эти законы и поправки к ним были одобрены 10 декабря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пять дней спустя президент Мун подписал указ об их вступлении в силу, после чего они сразу ст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Основной идеей этих новшеств стало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полномочий между ведущими след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ами. У главной спецслужбы страны – НРС, а также прокуратуры,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щены полномочия, которые переданы полиции и новому комитету. Так, НРС запрещено заниматься работой по выявлению пр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нутри страны, что перейдет теперь в список обязанностей полиции. НРС, которая сочетает функции разведки и контрразведки, теперь запрещено работа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екоторых областей (борьба с терроризмом,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и пр.). Эти ограничения полномочий НРС стали следствием скандалов, когда разведка ранее была уличена в попытк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под предлогом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НРС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13 г. была на стороне противников Мун Чжэ Ина, когда в итоге победи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лагеря Пак Кын Хе.

Хотя полномочия полиции Кореи расширены, но теперь она сама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е большие структуры - национальную и местную (муниципальную) полицию. Одно-

временно в рамках общей структуры полицейских органов создается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ледственный центр.

Прокуратура же потеряет право заниматься расследованием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служащих. Данная сфера теперь входит в сферу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вого органа – Комитета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Следователи Комитета будут выявлять, изучать и расследовать правонарушения всех госслужащих, уровня выше 3-го ранга (уровен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нистерства), включая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министров,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спикера парламента,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К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 госслужащим отнесены также прокуроры, судьи, руководство Центрального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ведущих контролирующих финансовых органов и пр.

Данные реформы вызвали больш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в среде консервативной оппозиции, которая считает, что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полномочий НРС в Южной Корее будут себя вольготно чувствова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шпионы, тогда как полиция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пыта не смож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необходимую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аботу.

Тем не менее НРС удалось сохранить свое нынешнее название. Ранее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Национальную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ую службу переименуют в Службу внеш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азведки Кореи, что будет символизировать разрыв с "порочным прошлым" и новый "чистый" старт без 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Однако, в конце концов было решено сохранить нынешнее наименование – Национальная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ая служб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понравилась оппозиции идея с отдельным Комитетом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госслужащих. Многие депутаты были уверены, что прокуратура справляется с этой работой. Однако правящий лагер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торого имеют в парламенте убедительное большинство, смог единолично добиться принятия необходимых законов и поправо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

## Фестиваль «Ёндынхве» включён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Фестиваль бумажных фонариков в виде лотосов «Ёндынхве» включён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Это одно из главных буддий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с 1300-летней традицией,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весной в честь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рождения Будды.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о внесении фестиваля в список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15-й сесс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охране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остоявшейся в штаб-квартире ЮНЕСКО 16 декабря. Фестиваль признан наследием человечества за многовековой вклад в единение людей перед социаль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за щедрость и открытость для всех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расы, религии и других отличий.

Фестиваль «Ёндынхве» – это буддий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 давней традицией. Впервые фестиваль провели в середине VI века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Чинхына, короля государства Силла. Начина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правителя, он проводилс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Упомина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фестиваля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IX века встречается также в исторических хрониках «Самгук саги». Изначально зажжение фонарей символизировало стремление осветить мир темноты и невежества ярким светом добродетели Будды. Свет истины, освещающая всё вокруг, избавлял людей от неравенства и дарил изобилие. Но если раньше фестиваль носил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елигиозный характер, то сейчас в нём 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любой. Перед проведением фестиваля фонарями украшаются буддийские храмы и улицы, а в день фестиваля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араде со своими фонарями.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и фестиваль «Ёндынхве» был занесён в 2012 году. Начиная с 2001 год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а в ЮНЕСКО 21 объект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KBS World

##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закрыло Пханмунчжом для туристов

19 декабря Командование ООН подтвердило, что пограничный пункт Пханмунчжом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закрыт для посещения туристами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на странице Командования ООН в Twitter,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одиктовано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защитить население РК и военный персонал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Мы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ём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оездок, как только ситуация с COVID стабилизируется»,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осещения Пханмунчжом возобновились 4 ноября после более чем годового перерыва, вызванного вспышкой африканской чумы свиней.

KBS World

## Группа BTS – пятый год подряд самая любимая звезда K-POP в мире

Самой любимой в мире звездой корейской поп-музыки пятый раз подряд стала группа BTS. Это выяснилось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Всемирным Радио KBS среди 378.593 жителей 185 стран. За BTS проголосовали 21,5% респондентов. Группа заняла первые места также в категориях «Мужская группа года» (30,3%), «Песня года» с композицией Dynamite (36,5%). Втор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исполнителей K-POP занял женский коллектив BLACKPINK. Их песня «How You Like That» стала второй в категории «Песня года». Звание «Новичок года» получил бойз-бэнд TREASURE, за который свои голоса отдали 35,5% респондентов.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просе жителей многих стран мира подтвердило популярность K-POP даже в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Опрос проводился с 27 ноября по 7 декабря в пяти категориях: «Певец года», «Песня года», «Новичок года», «Мужская группа года», «Женская группа года». С результатами опроса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Всемирного радио KBS. Вечером 18 декабря в YouTube можно будет посмотреть прямую трансляцию «Фестиваля песни KBS-2020», на котором такж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дробные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26 декабря в эфире Всемирного радио KBS на десяти языках прозвучит новогодняя специальная передача «K-Pop: итоги года».

KBS World

## На Сахалине досрочно построили современное инфек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нового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велось в ускоренном режиме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направили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Двухэтажное отделение, оснащенное по последнему слову техники,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до 30 человек одновременно. Лечение здесь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е тольк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и их семьи, но и гражданское население.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инфекционный корпус нового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примет в начал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Масштаб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соглашению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ороны РФ, которое ранее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лава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Сергей Шойгу.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лично побывал на объекте и оценил его возможности.

— Отлично, молодцы. Сделали хорошую работу. Я думаю, здесь будет комфортно военным и гражданским людям проходить лечение. Работа проведена очень своевременн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это была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Сделана она быстро — фактически за год. Люди смогут начать лечиться здесь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Спасибо за инфекционный центр! Уверен, мы сможем организовать здесь помощь всем нуждающимся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441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Гришин.

Новый инфекционный стационар состоит из одно- и двухместных Мельцеровских боксов с настенными консолями для подачи кислорода через клапаны, с вентиляцией, связью «пациент — пост медсестры», душевыми кабинками, санузлами и отдельными выходами в прогулочный дворик.

Учреждения оснащено аппаратами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и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й мембранной оксигенаци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инвазивного метода насыщения крови кислородом при развитии тяжелой острой дыхательной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компьютерным томографом, рентгеновским цифровым комплексом и портативным ультразвуковым сканером.

—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здесь. Как только сюда вошла — сразу обрадовалась. В таком восторге. Я уже 31 год работаю и просто в шоке от того, какая здесь красота и уют, какая аппаратура, — рассказала губернатору одна из сотрудниц медучреждения.

За состоянием больных будут следить круглосуточно с помощью камер,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 оказывать экстренную помощь.

Здание оснащено тремя лифтами: один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больных, в том числе на каталках с переносными носилками, еще два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подъема на второй этаж горячего питания.

Передавать пищу и лекарства пациентам будут через герметическое окно с ультрафиолетовым облучателем, блокировкой и светозвуковой сигнализацией.

Для удобства маломобильных больных сделаны пандусы, адаптационное табло, палаты со световыми маяками.

Монолитный железобетонный каркас инфекционного корпуса может выдержать десятибалльно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возведут главно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ое здание. Корпуса боль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единят теплыми переходами для быстрого перемещения больных между палатами хирургии, операционным блоком и реанимацией. Общая площадь зданий — 21 тысяча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территория застройки — 6 га.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до 150 человек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госпитале будут собственные службы ремонта медтехники, аптека, гараж, КПП, котельная, трансформаторная подстанция, дизель-генераторная установка, станция медицинских газов, хранилище для продуктов и даже свой клуб с библиотекой. Масштабный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й объект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озводят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за полвека.

## Сахалинцы обсудили с заместителем руководителя Росмолодежи реализацию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ов

11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чьи проекты победили в грантовом конкурс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лета «ОстроVa», 21 декабря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ибывшим в регион заместителем руководителя ведомства Григорием Гуровым.

— Для нас важно наследие, которое остае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федеральных форумов. Мы знаем, что сегодня востребованы модераторы, которые за месяц до форума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на интенсиве, и затем работали на «ОстроVaх». Также нам важно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ых сообществ, зде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грантовый конкурс Росмолодежи может стать для них одним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в этом непростом деле, — отметил Григорий Гуров.

Один из ярких проектов — «Школа студенческого актива «Лидер СахГУ»,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ила студентка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Татьяна Сидоренко. Его реализуют уже 12 лет. Проект собирает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которые участвуют в выездной школе, где проход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лекции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Татьяна предложила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и получила грант в размере 900 тысяч рублей.

— Мы соберем около 100 студентов. Будет не одна смена, как это обычно происходит, а три. Начнем обучать ребят небольшими группами, что позволит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 донести до них нужный материал. В итоге получим очень «заряженных» активистов, которы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могут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е только в вузе, но и на самых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 рассказала сахалинка.

Еще один житель области Павел Синютин на форуме «ОстроVa» предложил идею проведения в регионе чемпионата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среди дошкольников и младших школьников «KidSkills». В планах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устро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3D-моделированию, инженерии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ец получил 800 тысяч рублей.

— Также у нас есть нововведение — дошко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Мы научим малышей проводить уроки по английскому и арифметике. Уже закупи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й стол, учим их с карточками, принтерами, — поделился сахалинец.

Реализация грантов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2021 год. Сахалинцы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0 лет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его уникаль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 размере до 2,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грантового конкурса Рос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цам необходимо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е форумы. В их числе — «Таврида», «Территория смыслов», «Восток». На этих площадках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ходит защита проектов, где и объявляют победителей грантового конкурса. Кроме этого, он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ит и в заочном режиме. Подробности можно узнать на сайте Росмолодежи в разделе «Грантовая поддержка» (<https://fadm.gov.ru/activity/grant?regions=65>).

## На Сахалине наград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Дипломы и медали победителям и призер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егодня вручи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чук,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вручили ребятам также подарки от Агент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В этом году Нац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среди инвалидов и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Абилимпикс» впервые проходил в очно-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Участники выполняли конкурсные задани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аудиториях и мастерских. На площадках конкурса соблюдались все меры санит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борну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ляли 34 конкурсанты в 22 компетенциях. По итогам чемпионата островная команда завоевала 9 медалей, заняв 11 место в зачете среди вс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 серебряными призерами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стали Виолетта Шишмакова в компетенции «Ландшафтный дизайн» и Сергей Чекуров в компетенции «Разработчик виртуальной и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в копилку области принесли Дарья Михайлова — «Вязание спицами» (студенты), Елизавета Остремская —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школьники), Андрей Кожемяко — «Робототехника» (школьники), Илья Тен —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анимация» (школьники). Третье место в компетенции «Гончарное дело» (студенты) занял Семён Филимонов. Школьник Вячеслав Гришин стал призером в компетенции «Сборка-разборка электр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а специалист Артём Черных в «Брошюровке и переплетном деле».

— Сахалин гордится вами.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сложности и огранич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особым форматом соревнований, вы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илу духа и волю к победе. Желаю не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и двигаться к новым целям. Мы вас в этом поддержим, — отметил, обращаясь к ребятам,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чук.

Он добавил, что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оказывается комплексная поддержка, в том числе для социализации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Справочно: «Абилимпикс» я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 некоммерческим движением, цель которого — повышение престижа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развитие профобразования и содействие в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социализации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молодых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Чемпионат «Абилимпикс»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линейки проекто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Одноименная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ыла основ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для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для повыш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личностно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граждан, а также для создания эффективных социальных лифтов в России.*

*По итог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родолжи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среди инвалидов и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Абилимпикс» перенесли на год из-за пандемии. Мероприятие должно было пройти в Москве в мае 2021 года, но было отложено до 2022 года.*

##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ам предлагают выбрать название еди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Стартовал конкурс,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жители могут предложить имя нового авиапредприятия. Оно созда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Цель — повыси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крытое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водит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олпреда ДФО. Его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выбрать одно из предлож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либо указать свой вариант на странице конкурса: [aviadv.ru](http://aviadv.ru).

— Руководство нашей страны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остается повы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макрорегиона.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необходимо улучшить местное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Именно для этого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оздает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Она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 интересы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 создании авиакомп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Поэтому решили выбрать её название открыт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 подчеркнул вице-премьер — полпред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подведут 31 декабря. В этот же день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разыграют сертификаты почетного пассажира на бесплатный авиаперелет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бъединение авиапредприят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д крылом един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общую маршрутную сеть, охватывающую сотн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местных авиаперелетов задействуют 186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включая новые самолеты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единая ремонтная и обслуживающ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Откроют центры подготовки летного состава.

По расчетам, ежегодно нов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сможет оказывать услуги 2 миллиона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 Почетных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наград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ходящий год ознаменовался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ведением перв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18 декабря в з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награждение участников конкурса в категории «Серебряное волонтерство».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собравшимся лауреатам обратилась минис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лия Рокотьянская.

— В России набирает силу «серебряное»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 — одна из важных форм граждан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для граждан старше 50 лет.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десь не исключение, — отметила она. —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помогают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крупнейш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ятся в эпицентре культурной, спортивной и социаль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активн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совершенно справедливо считают, что статус «пенсия» для них — начало новой интересной жизни,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помощи другим. Активности тех, кто сегодня собрался в этом зале, можно только позавидовать.

В этом году в категории «Серебряное волонтерство» было две номинации: «Лучшее объединение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и «Лучший «серебряный доброволец».

В первой из них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о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ОО «Союз пенсионеров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отметились член Совета «Серебряных волонтеров» при губернатор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вижения «Социальные волонтеры ЦСОН» Геннадий Акмалов.

— Сегодня меня награждают за активную жизненную позицию, которой я придерживаюсь уже многие годы. Последние 6 лет занимаюсь проектом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Мы начинали с 15 челов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сегодня это порядка 7 тысяч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й области.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Самому взрослому из нас 86 лет. Приятно сознавать, что результаты нашей работы не остались незамеченными,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Напомним,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прем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стартовал в июне 2020 года. В конкурс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педагоги и врачи, спортсмены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олонтеры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и, социальные работники и молодежные активисты, а также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социальн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Цель премии — рассказать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о достижениях и заслуга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1년 별자리 운세

무슨 일이든 뜻대로 이루어지는 해

물병자리(1.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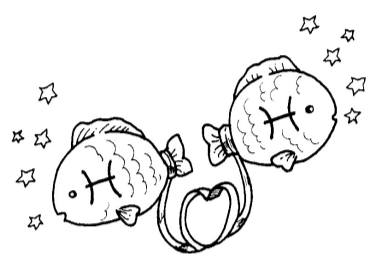
잘 풀리지 않아 골치거리였던 일들이 해결되었군요. 꾸준히 준비하는 자세로 일을 진행해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앞으로 정진하세요.



금전운: 어려운 시기는 모두 지나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되었던 일들은 하나 둘씩 해결되고 당신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니 올해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고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물고기자리(2.19~3.20)

올해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노력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게을리 했다면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관한 행운을 바라지 말고 매사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금전운: 올해는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실속있는 것에만 투자하세요. 금전운이 좋으니 열심히 일하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사업이 잘 풀리게 될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확실한 수입에 초점을 맞추세요.

양자리(3.21~4.19)

계획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무리하지 않아야 하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바라왔던 일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으니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운: 재물이 쉽게 모이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금전을 얻게 되는 행운이 따르네요. 자금을 유용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 철저하고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황소자리(4.20~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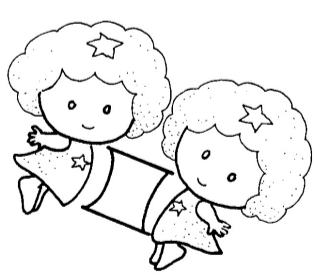
바라는 일이 있다면 뜻대로 이루어지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거듭 따르게 되겠네요. 올해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골치거리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당신의 능력을 힘껏 발휘하세요.



금전운: 투자나 매매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예요. 성적이 부진했던 종목에서 이익을 얻게 되니 올해에는 재무설계를 다시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금융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쌍둥이자리(5.21~6.21)

무슨 일이든 뜻대로 이루어지겠네요. 멋진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또한 귀인이 찾아오니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한다면 행운이 두 배가 될 거예요.



금전운: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재물이 쌓이고 정체되었던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될 거예요. 다만 과소비를 인해 힘들게 모은 금전을 소비하게 될 수 있으니 유혹을 조심하시고 보수적으로 운영하세요.

게자리(6.22~7.22)

평소에 갖고 닦아온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의 길을 찾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보세요.



금전운: 골치거리였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고 금전운이 상승하는 한 해가 되겠네요. 통찰력이 생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니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절약하고 저축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사자자리(7.23~8.22)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으니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계획을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당신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금전운: 본인이 판단하기에 신뢰가 가지 않은 거래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주위 사람들이 말린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사기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돈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세요.

처녀자리(8.23~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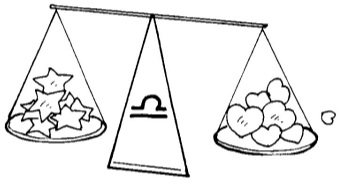
현실에 순응하는 마음가짐으로 따른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운 생활이 계속될 거예요.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약속이나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금전운: 부지런하게 정보를 모으고 금융 시장에 대해 공부한다면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에서 이익이 따르니 슬기롭게 움직이세요. 올해는 실패수가 적고 안정적인데요.

천칭자리(9.24~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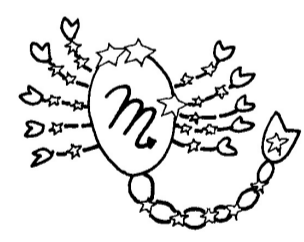
올해는 시험 합격의 기쁨과 승진을 하게 되는 운이 자리잡고 있으니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단계가 결정될 거예요. 운세가 상승하는 해이니 계획한 바가 있다면 시도해보세요.



금전운: 금융 시장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쁘게 움직이세요. 정보가 있는 곳에 찾아가고 직접 확인하여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이익을 얻는 방법이에요. 올해는 재물 운세가 좋으니 행운을 거머쥐세요.

전갈자리(10.23~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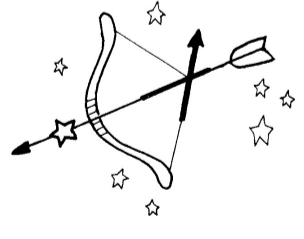
잠시나마 진행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겨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세 해결되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금전운: 이익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오히려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시장의 상황을 천천히 파악하여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사소한 욕심으로 큰 일을 놓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사수자리(11.23~12.24)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만남에서 이익을 얻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니 인간관계에 신경쓰세요. 주변에서 성공하면 당신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함께 목표를 위해 노력하세요.



금전운: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이익을 거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주위에 당신을 돕고자 하는 귀인이 따르고 있으니 올해는 자산 관리에 힘쓰도록 하세요.

염소자리(12.25~1.19)

그동안 노력해왔던 만큼 금전적인 이익과 명예를 얻게 되는 한 해가 되겠군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금전운: 올해는 명석한 두뇌로 금융 거래나 투자 등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니 가계부를 작성하고 소비 습관에 좀 더 신경쓴다면 더 큰 재물을 모으게 될 거예요.

[우리말로 깨닫다]

괜찮다, 일없다

사소한 실수부터 깊은 절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憂鬱)은 이미 감정이 아니라 병이 되었습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에게 어떤 질병보다 힘들고 답답한 것이 우울입니다. 한자만 봐도 걱정(憂)이 뻑뻑하게(鬱) 들어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들려주는 괜찮다는 말, 일없다는 말은 힘든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 조현웅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남한 말과 북한 말의 차이를 말할 때 '괜찮다'와 '일없다'를 예로 들기도 합니다. 남한이나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 아닌데도 왠지 남북의 언어 차이 같은 느낌도 드는 표현입니다. 두 표현이 같은 뜻은 아니어서 사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안심을 시키는 장면에서 쓰일 때가 많아서인지 왠지 친근한 느낌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에 따라 느낌도 무척 달라집니다. 둘 다 거절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긴 거절에도 예의가 필요하고 안심이 필요 합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을 떠올리면 토닥이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울먹이고 있는 아이에게 괜찮다는 말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일없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등의 표현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괜찮다'의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집니다. 괜찮다는 말은 괜히 하지 않는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따라서 '괜히'의 어원을 찾는 게 실마리가 됩니다. 괜히는 '공연히'가 줄어든 말입니다. 괜히 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연히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공연히'라는 말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어인지 '괜히'와 '공연히'의 연관성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합니다. 괜찮다는 말은 공연히 하지 않아도 된다, 까닭 없이, 일부러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괜찮다의 어원을 관계하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관계하다가 괜히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의미상 비슷하다고 해서 어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괜찮다의 의미를 나오는 상관없다는 뜻으로 생각해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로의 뜻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괜히를 공연히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공연히 하지 않는 게 왜 위로의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을 만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을 참기 어렵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괜히 더 슬프고 힘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옆에 와서 가만히 와서 공연히 그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일없다'에서 일은 의미가 중립적입니다. 특별히 나쁘거나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아니야.'와 같은 표현에서는 문제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많을 텐데 괜히 일이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큰일은 주로 좋은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큰일 났어요.'와 같은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무슨 일이 있을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럴 때 들려주는 말이 '일없다'입니다. 일이 없다는 말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괜찮다는 말과 일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닥쳐오는 일이 별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괜히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더 좋아질 겁니다. 위로의 말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 줍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일없어. 힘 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상대가 걱정할까봐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출처: 사주닷컴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На Сахалине пенсионерка «подарила» мошенникам пол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Холмске пенсионерка перевела мошенникам пол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Женщина поддалась на известную ловушку аферистов из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банка».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управлении МВД, 17 декабря за помощью к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ям обратилась 76-летняя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ей с разных номеров позвонил неизвестный и представился старшим инспектором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банка. Мужчина заявил, что мошенники якобы пытаются взломать ее банковский счет, поэтому он попросил перечислить ее деньги по номеру, который затем продиктовал.

Пенсионерка пришла в банк и сняла со своего счета указанную сумму. Затем в торговом центре через оператора салона сотовой связи перечислила деньги на указанный счет. Затем пожилая женщина поняла, что ее обманули и обратилась в полицию.

В этот же ден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45-летняя островитянка заявила в полицию о том, что у нее с карты украли 31 тысячу рублей. Женщи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опубликовала в интернете объявление о продаже цветов. Затем с ней связался неизвестный и сказал, что перевел 7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ее банковскую карту. Мужчина попросил проверить, поступили ли деньги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Но у сахалинки не было его, по-

этому она попросила мужа поговорить с покупателем. Во время телефо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островитянин сообщил звонившему данные банковской карты, а затем с нее списали деньги.

По всем фактам возбудили уголовные дела.

## Сахалинских гамбургеров самый дорогой

Россия 통계청이 햄버거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11월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의 가격은 2019년 11월보다 8루블리가 오른 평균 96.93 루블리이다.

러시아 통계청 기록에 따르면 햄버거는 잘린 빵 사이 고기 커튼렛이 들어간 샌드위치로 햄버거는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다. '사할린 쿠릴' 러시아 국영통신이 국내 몇 개 지역에서 햄버거의 가격이 특별히 급등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코미 공화국에서 1년 만에 햄버거의 가격이 47루블리가 올라 현재 100.52루블리이다. 모스크바에서는 5.2루블리가 올라 도심에서 햄버거 평균 가격은 119.54루블리이다.

사할린에서 햄버거의 가격은 가장 비싼 208.87루블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어 무르만스크주는 178.88루블리, 한티 만시스크 자치구는 174.24루블리이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리페츠크주에서는 53.25루블리이다.

러시아 연방 호텔 요식업계 회장 이고리 부하로브는 햄버거의 가격은 식품 가격, 배송비, 임대료 등 일련의 요소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 매점들에서도 소비자의 소비여건에 초점을 맞추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ают самые дорогие гамбургеры

В Росстате сообщили о резком росте цен на гамбургеры. По данным за ноябрь средняя цена составила 96,93 рубля, что на 8 рублей выше чем в ноябре 2019 года.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NEWS.ru.

В описании Росстата сказано, что гамбургер – это сэндвич,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 из мясной котлеты, внутри разрезанной булки. Его продают предприятия быстрого питания. По данным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в нескольк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цена на гамбургеры выросла особенно резко. К пример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ми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гамбургеры подорожали на 47 рублей. Сейчас они стоят 100,52 рубля.

А вот в Москве стоимость выросла всего на 5,2 рубля. Средняя цена по городу на гамбургер – 119,54 рубля.

Самые же дорогие гамбургеры прод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где цена за них достигает 208,87 рублей. Далее идут 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 178,88 рублей и ХМАО – 174,24 рубля. Минимальная цена на гамбургеры в Липецкой области – 53,25 рубля.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рестораторов и отельеров России Игорь Бухаров пояснил, что цена на гамбургеры зависит от ряда факторов: стоимость продуктов, их доставка, стоимость аренды помещения. В регионах заведения также ориентируются на платежеспособность своих клиентов.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 91 ЗАВЕДЕНИЕ
- 684 200 ЗАКАЗОВ
-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28 075 ОТЗЫВОВ

###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                                                                                                                                                                                               |                                                                                                                                                 |                                                                                                                                                                                                      |                                                                                                                                                                           |                                                                                                                   |                                                                                                                                                                                                                                            |
|-----------------------------------------------------------------------------------------------------------------------------------------------------------------------------------------------|-------------------------------------------------------------------------------------------------------------------------------------------------|------------------------------------------------------------------------------------------------------------------------------------------------------------------------------------------------------|---------------------------------------------------------------------------------------------------------------------------------------------------------------------------|-------------------------------------------------------------------------------------------------------------------|--------------------------------------------------------------------------------------------------------------------------------------------------------------------------------------------------------------------------------------------|
|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                                                                                                                                                 |                                                                                                                                                                                                      |                                                                                                                                                                           |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                                                                                                                                                                                                                                            |
| <p><b>Издатель:</b><br/>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br/>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br/>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br/>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br/>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br/>E-mail: skr@sakhalin.ru<br/>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br/>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br/>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br/>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br/>50 раз в год.<br/>Индекс ПР575<br/>Тираж 13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br/>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